

LG유플러스 — 매출 -3.9%, 서비스수익 +2.0%

FY2025 무선 점유율 28.5% → 29.5% — CAPEX는 2년에 32.5% 줄었다

- 2Q26 매출은 -3.9%인데 영업이익은 +13.1%다 — 회사가 밝힌 서비스수익은 +2.0%다.
- FY2025 무선 점유율이 28.5% → 29.5%로 올랐다(SKT -2.5%p, KT +1.6%p).
- CAPEX가 2조 9,403억원(FY2023) → 1조 9,838억원으로 32.5% 줄어 잉여현금이 9,800억원이다.

매출이 줄어도 이익은 늘었다

8월 6일 공시된 2Q26 잠정실적은 매출 3조 6,949억원(YoY -3.9%, QoQ -2.9%), 영업이익 3,445억원(YoY +13.1%, QoQ +26.5%)이다. 상반기 누계는 매출 7조 4,987억원(-1.2%), 영업이익 6,167억원(+10.1%)이다.

회사는 같은 공시에서 서비스수익을 따로 밝혔다 — "2Q26 연결 서비스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2.0% 성장"이며 정의는 "전체 매출에서 단말 매출을 제외한 매출"이다. 즉 전체 매출 감소는 단말 판매 쪽에서 왔고 통신 본업은 늘었다는 뜻이다.

단말 매출은 원가율이 높아 이익 기여가 낮으므로, 이 조합은 이익률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 2Q26 영업이익률이 9.32%로 전년 동기(7.92%)보다 1.40%p 높다. 1H26 기준으로 7.37% → 8.22%(표 1).

다만 분기 진폭이 크다 — 최근 8개 분기 영업이익률이 3.79~9.32%로 벌어져 있고 3·4분기가 낮은 패턴이 반복된다(3Q25 4.03%, 4Q25 4.43%). 비용 내역이 잠정 공시에 없어 원인은 특정하지 않았다.

3사 중 점유율이 오른 회사

FY2025 무선서비스 시장점유율은 LG유플러스 28.5% → 29.5%(+1.0%p), KT 26.5% → 28.1%(+1.6%p)인 반면 SK텔레콤은 44.9% → 42.4%(-2.5%p)다. 1위 사업자가 잃은 2.5%p를 나머지 둘이 나눠 가진 구조이며, LG유플러스와 KT의 격차도 2.0%p → 1.4%p로 좁혀졌다(표 2).

이동통신 회선도 2,852만 → 3,071만(+7.7%)으로 늘었다.

매출 구성에서는 단말이 더 빨리 늘었다 — FY2025 통신·기타매출 11조 1,188억원(+3.6%), 단말기매출 3조 912억원(+13.6%), LG헬로비전 통신매출 9,127억원(-1.9%)이다. FY2025에는 단말이 매출을 밀어올렸고 2Q26에는 단말이 매출을 끌어내린 것으로, 이 항목이 분기 매출의 진폭을 만든다.

투자를 줄여 현금이 남았다

CAPEX가 2조 9,403억원(FY2023) → 2조 4,051억원 → 1조 9,838억원으로 2년에 32.5% 줄었다. 영업활동현금흐름은 2조 9,638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CAPEX 차감 후 잉여가 347억원(FY2023) → 9,302억원 → 9,800억원이 됐다(표 3).

한편 이익 자체는 정체다 — 2년간 매출은 +7.5%인데 영업이익은 -10.6%로 이익률이 6.94% → 5.77%가 됐다. 다만 부채비율은 129.5% → 117.1%로, 매출채권회수일수도 44.3 → 39.7일로 개선됐다.

환원이 두텁다 — 10년 18건(배당 16·소각 2) 중 8건이 최근 3년이고, 2026년 4월 주식소각에 이어 7월 29일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과 배당이 함께 공시됐다. 희석 공시는 0건이고 위험신호도 전부 꺼져 있다. PBR 0.72배(321사 중 13%), PER 12.25배(22%)로 배수는 낮다.

국면 판단

**점유율 상승
투자 축소기**

현재주가 (26/08/07)

14,960원

목표주가

제시하지 않음

투자자문업이 아니므로 투자 의견·목표주가를 산출하지 않는다.

1순위 점검 지표

**무선 점유율
(28.5% → 29.5%)**

Key Data

시가총액	6.3조원
PER / PBR	12.3배(22%) / 0.72배(13%)
외국인 / 공매도잔고	41.7% / 0.7%
부채비율(FY2025)	117.1%(2년 전 129.5%)
10년 희석 공시	0건(환원 18건)
위험신호 / 표시점수	0건 / 100점 A+

영업실적 및 주요 지표

구분	2023	2024	2025	1H26
매출액(억원)	143,726	146,252	154,517	74,987
영업이익(억원)	9,980	8,631	8,921	6,167
영업이익률(%)	6.94	5.90	5.77	8.22
순이익(억원)	6,302	3,146	5,092	3,937
영업활동 현금흐름	29,750	33,353	29,638	8,639
CAPEX / CFO-CAPEX	29,403 / +347	24,051 / +9,302	19,838 / +9,800	주p
매출채권 회수일수(일)	44.3	42.3	39.7	주p

2Q26 연결 서비스수익(전체 매출·단말 매출)은 회사 공시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0%. 8/6 연결 잠정치(감사 전). 주p 잠정실적 공시에는 재무상태표·현금흐름표가 없다.

표 1. 매출은 줄고 이익률은 올랐다 (단위: 억원, %)

구분	1Q24	2Q24	3Q24	4Q24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
매출액	35,770	34,937	38,013	37,532	37,481	38,444	40,108	38,484	38,037	36,949
영업이익	2,209	2,540	2,460	1,422	2,554	3,045	1,617	1,705	2,723	3,445
영업이익률(%)	6.18	7.27	6.47	3.79	6.81	7.92	4.03	4.43	7.16	9.32
순이익	1,304	1,646	1,349	-1,153	1,625	2,171	491	805	1,760	2,177
2Q26 — 매출 -3.9%인데 영업이익 +13.1% · 회사가 밝힌 서비스수익(단말 제외)은 +2.0% — 매출 감소는 단말 쪽에서 왔다										
1H26 누계	매출 74,987(-1.2%) · 영업이익 6,167(+10.1%) · 세전 5,376(+13.7%) · 지배주주 순이익 3,967(+3.0%) · 이익률 7.37% → 8.22%									

주: 회사가 공시에서 "연결 서비스수익은 전체 매출에서 단말 매출을 제외한 매출"이라고 정의하고 2Q26 +2.0% 성장을 밝혔다 — 단말 매출은 원가율이 높아 이익 기여가 낮으므로 매출 감소가 이익률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단말 매출의 분기별 금액이 공시되지 않아 감소 폭은 계량하지 않았다. 3·4분기 이익률이 낮은 패턴이 반복되나 비용 내역이 없어 원인은 특정하지 않았고, 4Q24 순손실 1,153억원의 항목도 요약 범위 밖이다. 자료: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20260806800073)·분기보고서(2026.03, 20260515000666)

표 2. 1위가 잃은 몫을 돌이 나눴다 (단위: %, %p, 만 회선)

무선 시장점유율	2024	2025	증감
SK텔레콤	44.9	42.4	-2.5%p
KT	26.5	28.1	+1.6%p
LG유플러스	28.5	29.5	+1.0%p
LG유플러스와 KT의 격차가 2.0%p → 1.4%p로 좁혀졌다 · 이동통신 회선 2,852만 → 3,071만(+7.7%)			
통신·기타매출	107,360	111,188	+3.6%
단말기매출	27,219	30,912	+13.6%
LG헬로비전 통신매출	9,304	9,127	-1.9%

주: 점유율은 각사 사업보고서 기재 기준이며 산출 방식이 다를 수 있다 — 3사 합계가 100%가 되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2025년 합 100.0%). ARPU가 공시되지 않아 회선 증가(+7.7%)가 매출로 얼마나 이어졌는지는 계량하지 않았다. FY2025에는 단말기매출이 +13.6%로 매출을 밀어올렸는데 2Q26에는 반대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나, 분기별 단말 매출이 공시되지 않아 확인하지 않았다. 자료: 사업보고서(2025.12) 시장점유율·가입 현황·수익 구성

표 3. 투자를 줄여 현금이 남았다 (단위: 억원, %)

구분	2023	2024	2025	2년 증감
CAPEX	29,403	24,051	19,838	-32.5%
영업활동현금흐름	29,750	33,353	29,638	-0.4%
CFO - CAPEX	+347	+9,302	+9,800	28배
반면 이익은 정체 — 매출 +7.5%에 영업이익 -10.6%(이익률 6.94% → 5.77%)				
부채비율 / 매출채권회수(일)	129.5% / 44.3	124.8% / 42.3	117.1% / 39.7	개선
자본배분(10년)	희석 0건 · 환원 18건(배당 16·주식소각 2), 8건이 최근 3년 · 2026-04-30 주식소각 · 2026-07-29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배당			

주: CAPEX가 2년에 32.5% 줄어 잉여현금이 크게 늘었다 — 통신 설비 투자 사이클의 국면 변화로 볼 여지가 있으나 회사의 투자 계획이 요약 범위에 없어 지속성은 판단하지 않았다. 투자 축소는 잉여현금을 늘리지만 장기 경쟁력과는 별개 축이므로 점유율·회선 지표와 함께 봐야 한다. 2026-07-29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20260729000479)은 6,155,951주 규모다(취득가 14,620원 기준 약 900억원). 회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일환이며 취득분을 소각 등 주주가치 제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다만 취득 주식수는 주가 변동에 따라 달라진다. 자료: 사업보고서(2025.12) 연결재무제표, 10년 공시 이력, KRX 시세(2026-08-07)

점점 지표

1순위는 무선 시장점유율이다. 28.5% → 29.5%로 3사 중 KT와 함께 올랐고 1위 사업자가 2.5%p를 잃은 국면이므로, 이 흐름이 이어지는지가 이 회사의 오랜 과제(가입자 규모)에 대한 답이다. 두 번째는 서비스수익이다. 전체 매출은 단말 판매에 흔들리므로 회사가 별도로 밝히는 서비스수익 증가율(2Q26 +2.0%)이 본업의 실제 성장을 보여준다. 세 번째는 CAPEX다. 2년에 32.5% 줄어 잉여현금이 9,800억원까지 늘었는데, 투자 축소가 환원 재원을 만드는 동시에 장기 경쟁력과는 별개 축이므로 점유율과 함께 본다. 영업이익률은 3·4분기가 낮은 패턴이 반복되므로 연간으로 판단한다.

고지

본 자료는 투자자문·투자권유가 아니며 투자 의견·목표주가 추정 실적을 산출하지 않는다. 투자 판단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모든 수치는 DART 제출 공시와 한국거래소 시세에서 인용했고 외부 전망치·제3자 추정치는 쓰지 않았다. 분석과 판단은 전부 자체 산출이다. 근거 공시: 사업보고서(2025.12) · 분기보고서(2026.03, 20260515000666) ·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20260806800073).

한계: ① 1H26은 감사 전 잠정치다. ② 분기별 단말 매출이 공시되지 않아 매출 감소 폭을 항목별로 분해하지 않았다. ③ 비용 내역이 없어 3·4분기 이익률이 낮은 원인과 4Q24 순손실의 항목을 특정하지 않았다. ④ ARPU가 공시되지 않아 회선 증가가 매출로 이어진 정도를 계량하지 않았다. ⑤ 점유율은 각사 기재 기준이라 산출 방식이 다를 수 있다. ⑥ 회사의 투자 계획이 요약 범위에 없어 CAPEX 축소의 지속성을 판단하지 않았다.